

힘든 양파농사 이제 기계로 ‘척척’

전남도농업기술원 기계화 재배 종합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경영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 기대

국내 양파 재배면적은 2만6천425ha로 고추(2만8천824)와 마늘(2만8천35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1조1천억원으로 딸기의 1조4천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채소 작물이다.

그러나 생산비 중 노력비 비중이 56.1%로 가장 높으며 특히, 정식작업은 힘든 노동을 수반한다. 양파농사는 50% 정도가 인건비라 할 정도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수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양파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양파 정식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식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양파 종자 발아율 향상법 ▲육묘관리법 ▲기계정식 및 임포율 향상법 등 10여건의

육묘방법과 재배법을 개발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또한, 개발 기술을 농사 현장에 전파하는 등 국내외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양파 기계화 표준 매뉴얼 개발과 안정화 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개발된 정식기계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법과 안정생산 기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농기원은 시판 기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계화 재배법과 이에 따른 시비관리 등과 관련

한 연구를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안군은 암태면 시범사업 농가포장에서 양파 파종, 육묘, 재배관리, 정식에 이르기까지 ‘양파 기계정식 시연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엔 시연하는 기준은 6조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하루에 4천㎡ 양파를 정식해 작업시간이 2.5시간/10a으로 91% 일손 절감효과가 있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준 연구사는 “양파 기계화를 조속히 확산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 발굴과 이에 따른 맞춤형 농업 개발을 추진해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힘든 노동에 해결책을 하루빨리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가 AI 차단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왼쪽부터 두번째 박영규 곡성축협조합장, 세 번째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다섯 번째 이인환 농협곡성군지부장.

농협전남본부 공동방제단 방역현장 독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은 지난 12일 이인환 농협 곡성군지부장, 박영규 곡성축협조합장과 함께 철새 도래지인 섬진강변을 찾아 AI 차단 방역을 위해 소속중인 곡성축협 공동방제단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공방단 요원들과 같이 철새도래지 현장 방역을 직접 시연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철새도래지나 소규모

축산농가와 같은 방역 취약지역은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집중 소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집중 소독에 노력해 달라”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공동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방역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남농협 공동방제단은 모두 99개반으로 17개 축협에서 운영 중이며, 소규모 한우농가 등 총 1만2천75농가에 대해 연간 28만9천회의 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죽녹원 대숲길담양 등 ‘농업유산’ 관광 새바람

농진청, 여행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라승용 청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산체험, 주제(테마)여행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는 동안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농업자원 중 국가가 보전 가치를 인정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지금까지 9개를 지정했다.

최근 농업유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촌관광의 새로운 주제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이나 축제,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농진청은 먼저 담양과 전북 부안 2곳을 선정하고 지역별 관광자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산 체험과 주제 여행, 지역 연계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가와 방문객, 학생 등 56명에게 시연했다.



농협광주본부 김일수 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2일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이 시작된 삼도농협 송학창고를 방문해 현장 농협 직원들을 격려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5만8천원부터 시작한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공공비축 건조벼 수매 점검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5만8천원부터 시작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12일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이 시작된 삼도농협 송학창고를 방문해 수매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은 이날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계획돼 있으며, 광주시 전체 공공비축 벼 매입 물량은 총 3천653t으로 건조벼 2천853

t, 산물벼 800t이며,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일미 등 2개 품종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5만8천원부터 시작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입 품종 이외의 혼합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가

처음돼,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되는 만큼 출하농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현장 농협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 교육 동영상 배포

내년1월 시행...행동수칙 홍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월 1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행동수칙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교육 동영상을 배포했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영상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농업인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의 용이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동영상은 드라마 3편과 로고송 2편으로 농업인들에게 친숙도가 높은 백일첩(배우), 이지에(아나운서)가 출연했다.

로고송은 트로트와 랩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으며, 해당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PLS 의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배배당당 하세요’(배추에는 배추농약, 당근에는 당근농약만 사용하세요)라는 쉬운 말로 표현했다.

농식품부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를 시작했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민기자

2018 전남 임업인 화합소통 한마당 성황

유공자 시상·발전 서명 등 다채

전남 임산업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지난 12일 임업 후계자, 산림경영인, 산림조합원 등 임업인과 감영록 전남지사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정은조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순규 한국임업후계자협

회전남도지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는 기념행사, 어울림한마당과 전시·체험행사 등으로 이뤄졌다. 기념행사는 보성 명창과 푸르미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임업인 시상, 임학 전공 대학생의 산림현장 낭독과 다짐, 임업 발전 서명식 등이 진행됐다. 전남 임업인은 후계자, 독립가, 선도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 2천200명과 산림조합원 등 산수 35만명 규모다. /김종민기자

신축원룸매매

신축원룸
하남농협 1분(코너)
▣ 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아파트 35평형)
최고급 인테리어
월 수익 480만

▶ 매가 8억5천(융2억5천만)

① 월곡동(하남농협 1분)(코너)(1층상가1칸)
2층~3층(원룸10개) 4층(주택,32평)
월세 500만 융(2억5천만)
▶ 매가 8억 6천만

② 월곡동 농협 2분 원투룸 → 16개
월수익 510만(보1천500만,융2억5천)
▶ 매가 8억4천만

③ 산정동(산정공원앞) 원투룸 15개
보1,800만, 월 540만
▶ 매가 8억2천만

010-6670-9800

상가 매매 (수익형 오피)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23평 (모든업종가능).(주택가능)

▣ 공실 없음 (임대 항시대기)(방2개)

보5백 월40만

▶시세 1억3천

매가 8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추천물건)

1) 도천동 (토지)
▣ 1,373평
(6차선 도로점) (코너)
하남공단 1분
유통단지 삼거리
▶ 감정가 35억
최저가 19억6천

2) 남구 송하동 (5층 상가건물)
토 138평 건491평 광주여대 2분
(교회, 본사건물 추천)
▶ 감정가 12억 → 최저가 6억8천

3) 남구 서동 (4층 상가건물)
토 67평 건 168평 / 대성초등학교 앞.
아파트 단지 대로변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4억5천

4)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 38평 건 145평 / 광주역 3분 ,
금남로5가 2분거리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5백

010-7384-7800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상가/주택/기타

① 광산구 송정동 (상가주택) (공방1분)토 30평 건 65평
▶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

② 상무지구 세영아울렛 (2층) 23평
▶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3억7천

③ 광산구 우신동 (4층중 2층) 121평
▶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8천

④ 북구 정동동 (주택)
토 180평 건 79평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2천

⑤ 서구 화정동 서부코아
건물 218평 (노래방 시설 50여개)
▶ 감정가 8억4천 → 최저가 3억

⑥ 북구 문흥동 (7층중 6층 상가 건물 228평
▶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8억5천

⑦ 수완지구 1층 상가 (50평)
▶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5억4천

⑧ 상무지구 세영아울렛 (2층 , 118평)
▶ 감정가 34억 → 최저가 19억

직원 모집

1) 경매 배우면서 근무 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분

4) 가족같이 일하면서 근무 하실분

010-6670-9800

CMYK